

2014 7.06 연중 제 14 주일

제 1 독서 : 즈카르야 9,9-10 <보라, 너의 임금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너에게 오신다.>

제 2 독서 : 로 마 8,9.11-13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복 음 : 마태오 11,25-3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연중 제 14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 1 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즈카르야 예언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화로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중동의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

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서로 적대시하며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서로 보복전을 하면서 총대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하느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하느님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하느님께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 2 독서, 로마서에서 바오로사도께서 그 이유를 설명 하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는 우리가 보는 한국어, 영어 성경보다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않고 성령안에 있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스페인어로는 **“너희들이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느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한다.”** 라고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분명히 당신의 외아드님인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게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쁨,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우리 바깥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사는 그 일들, 그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요?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되어서 어깨가 올라가고,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식들이 잘 살아가지고 진짜 행복하기를 ...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멍에가 무거워 지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가 얼마나 편한지 경험을 해 보십시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앞에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진짜로 죽어야 그 멍에를 쓸 수가 있고, 그 멍에가 얼마나 가벼운지 즐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그 지혜와 은총을 감추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분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는 그 어떤 공약과 좋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대적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영혼처럼 영혼할 것이라

고 자꾸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나를 수퍼맨, 수퍼우먼으로 만들어서 하느님과 대적을 합니다. 싸워 보니까 느끼게 됩니다. 힘이 딸리는 것을! 왜냐!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모든 어려움도 모든 고통도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하여 3 주, 4 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음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 2 독서 로마서에서 **하느님의 영을 믿고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분의 목소리를 듣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고 하시지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 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그 분의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우리의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 쓰여져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들을 수 있는가? 교리서 1779 번 “ **각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양심성찰이라는 말이 있죠. 천주교의 전통은 무엇이나하면 주무시기 전에 삼덕송을 바치고 그리고 양심성찰에 들어 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냈고, 과연 내 생활방식과 생각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생활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tv 앞에서, 어린이들은 인터넷에 시간을 너무 보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자기 기분만, 육체적인 기분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한 그분이 계신 곳에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 **우리의 생활은 흔히 반성이나 자기 성찰 또는 내면화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러한 내면성(內面性) 이 더 절실히 요구 된다.**” 그래서 2 천여년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 **양심으로 돌아가 물어 보십시오!**” 하십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대들이 하는 모든일의 증인이신 하느님을 바라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왜 그러고만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은 안하십니까?” 하고 탓하기 보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잘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성인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하느님께서 다 보고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남들만 안보면 되니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다른 증인이 필요 없이, 하느님 스스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했을때에 마음이 아프시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심이 영원하신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기껏해야 백년, 백 이십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과 손이,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 우리의 눈과 입과 귀가 사용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라, 너의 임금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너에게 오신다.>

즈카르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9,9-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9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10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45(144),1-2.8-9.10-11.13 ≡-14(◎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불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9.11-13

형제 여러분, 9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13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5-30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